

전주시, 스마트도시로 맞춤형 서비스 ‘주목’

정부 ‘거점형 스마트시티’ 선정
전국 유일 총 324억 투입
생활SOC 등 12개 사업 추진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찾아가는 생활 SOC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을 지키는 건강·안전 AI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변화할 전망이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 ‘2025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전국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실증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스마트 거점 도시를 조성하는 국토부의 핵심 정책 사업으로, 올해는 전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AI 융합 거점 스마트 대표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향후 3년간 국비 160억 원과 지방비 160억 원, 민간 투자 4억 원 등 총 324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전북 스마트 리전(Region)의 출발점, Adaptive city(어댑티브 시티, 맞춤형 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찾아가는 생활 SOC △조각한 맞춤형 AI 헬스케어 △시민 환영형 기후위기 대응 △AI 기반 도시 안전 등 4개 분야 12개 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ICT 산업 육성을 이끄는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혁신 실증 공간인 ‘전주 스마트 열림터’를 구축하고, ‘전주 데이터 이음 플랫폼’을 통해 도시 전반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시민·창업자·기업 등에게 데이터 기반 AI 기술 교육과 창업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이 사업은 (주)인인프라와 현대자동차(주), 기아차 등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주시정연구원, 전주대학교, (주)시스글로브, (주)에스테크,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관·학 협력 기반의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서비스와 연계된 전북

광역 데이터 허브를 활용해 도내 지자체는 물론, 전국 확산이 가능한 표준 플랫폼 도시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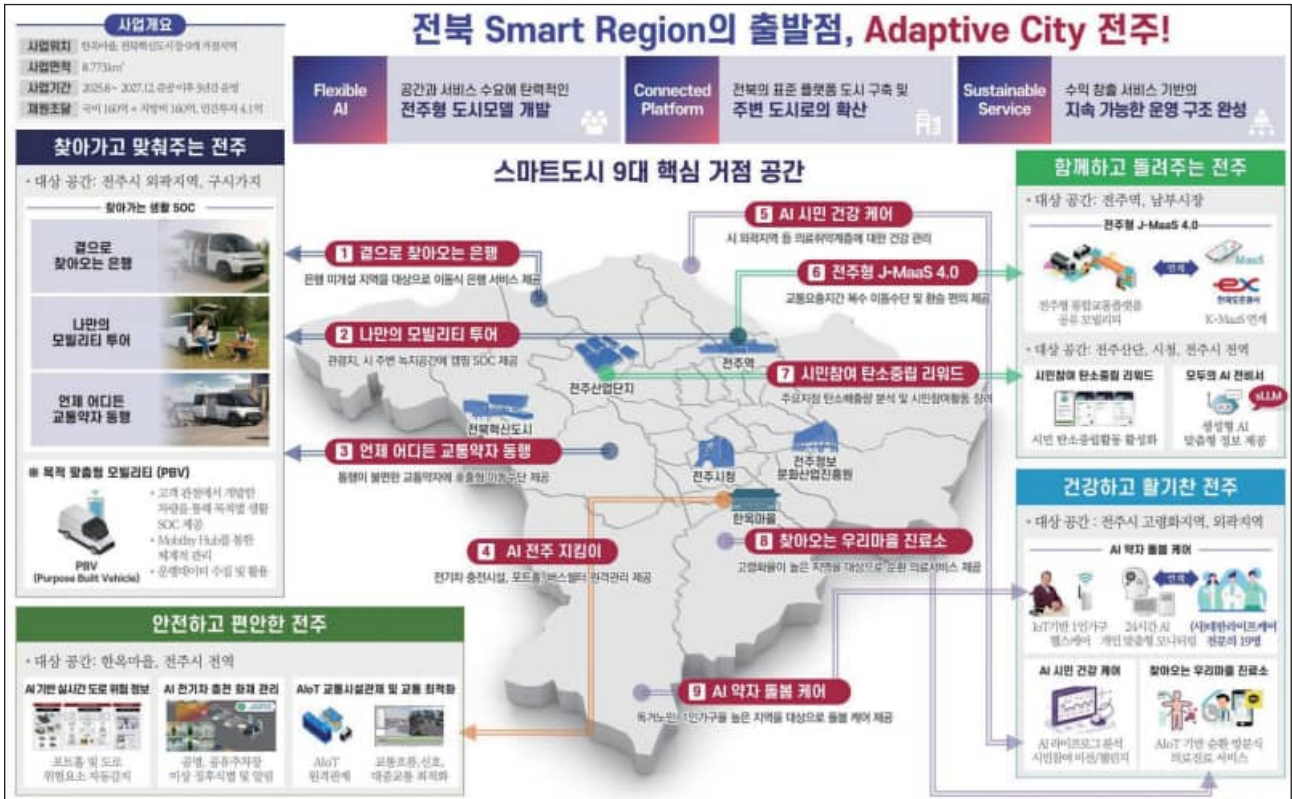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조성과 연계한 영상메시지와 더불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이번 공

모사업은 전주 지역 김윤덕 국회의원과 이성운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춘석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지원을 통해 선정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 ‘2025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전국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전주 거점형 스마트도시 공간구성도. <사진=전주시>

도, 피델리티·BNY 손잡고 금융허브 도전

금융중심지 뉴욕·보스턴 방문
전주사무소 추가 유치 제안
국정과제 반영 발판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미국 뉴욕과 보스턴을 방문해 세계 주요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도시 조성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구축 일환이다.

도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 비전을 뉴욕과 보스턴 현지 글로벌 금융기관과 공유했다.

김관영 지사는 16일(현지시간) 뉴욕 현지의 국내 금융사 주재원과 월가의 한인 금융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북의 금융산업 현황과 미래 비전을 소개와

글로벌 전문가들과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18일에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미국 최고 은행인 BNY 본사를 방문해 카싱카 웰스트롬(Cathinka Wahlstrom) CCO(Chief Commercial Officer, 최고상업책임자)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사업 확대, 인재양성,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BNY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최초 상장되어 53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수탁하는 240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금융기관이다. 지난 2019년 은행 부문과 2023년 자산운용 부문 전주사무소를 개소하며 전북자치도 및 국민연금공단과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또 전북자치도는 보스턴에 위치한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를 방문해 카밀 칼스트롬(Kamill Kallstrom) 최

고투자책임자(CIO, Chief Investment Officer) 등과 간담을 갖고 전주사무소 설치를 공식 제안했으며, 자산운용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 협력을 요청했다.

피델리티는 운용자산(AUM)이 5조 9천억 달러로, 블랙록과 뱅가드에 이어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다.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주식 및 ETF 자산을 위탁운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ESG 투자 등 글로벌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 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금융기업의 전북 유치 가능성을 한층 높였으며, 전북을 기후에너지, 스마트농생명 연계 자산운용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북에는 국내외의 16개 금융기관이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차기 국정과제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반영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다지고 있다.

/김영태 기자

이성운 의원, 내란법 구속기간 연장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
‘윤석열 출퇴근 재판’ 제동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국회의원(전주시을)은 19일 내란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보석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기간 소멸 피고인들이 출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구속취소로 풀려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이어 ‘출퇴근 재판’ 받는 내란범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민들은 이들이 서로 만나 증거인멸·도주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인데,



이성운 의원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구속피고인은 총 6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성운 의원은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피고인이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②피해자·사건관계인 등에게 위해·보복·회유 목적으로 접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구속기간(2개월)을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최장 6개월이던 구속기간이, 1년까지 늘어난다.

/정재근 기자

“제2경찰학교 남원으로” 1천人 결의

운봉서 유치 결의대회
시민·영호남 경찰 함께 선언

19일, 남원시 운봉 허브밸리 일원에서 영·호남 경찰 직장협의회와 남원시민이 함께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해 9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위한 경찰청 공모에서 남원시가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국회 대토론회와 영·호남 유치 결의대회 등으로 이어진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보여준 의미 있는 장이었다. 행사에는 영·호남 경찰 직장협의회 본부장단과 시군 회장, 그리고 남원시민 및 유관기관·사회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에 간절



한 바람을 함께 나누며 염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경기남부, 부산, 제주 경찰 직장협의회 본부장들도 남원 유치 지지에 뜻을 함께해 경찰 내부 공감대 형성과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에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순배수 경찰청 직장협의회 전북 본부장은 “영호남의 중심지이자 경찰정신 교육 상징성을 지닌 남원은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북도, 국과장급 인사

전북도는 19일 2025년 하반기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반 인사에서 국장급에서는 유희숙 국장이 2036년하계올림픽유치단장(8월1일자)에, 민선식 남원부시장이 농생명축



산 산 업 국 장 에, 강 영 석 의 산 부 시 장 이 치교협력국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또 인구청년정책과장 등 총 23명에 대한 인사도 7월 1일자로 전보인사했다.

/김영태 기자



對美 관세 전북 연간 수출액 1,621억 감소

한은전북본부, 연구조사 철강관·농기계·세탄적 연간 역대 생산 2007억 감소 정책지원 등 대책 마련 시급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9일 조사연구보고서 '美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美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전북 수출 및 경제 전반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전국과 상이한 수출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를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美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위해 광범위한 관세정책을 추진 중이다.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

과했으며 이외에도 전 품목에 대한 보편 관세와 일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는 제한된 품목만을 대상으로 통상 압박이 이뤄졌던 트럼프 1기에 비해 강화된 모습이다.

2024년 전북의 對美 수출은 전년 대비 25.2% 감소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 이는 농기계·건설광산기계 등 주력 품목의 수출 급감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반도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전국과 대조된다. 또 전북은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하는 전국과 달리 중견·중소 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보였다. 전북의 주요 수출 경쟁국은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으로 나타났다.

美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모효과(-1.23억달러)와 대체효과(+0.05억달러)로 구분해 추정한 결과, 연간 수출액은 1,621억원(1.19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북 전체 수출(63.6억달러, 2024년 기준)의 1.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관 및 철강선(-20.9백만달러), 농기계(-19.5백만달러), 자동차 부품(-18.2백만달러) 순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관 및 철강선과 자동차 부품의 경우 고율 관세 부과로 여타 품목 대비 수출 감소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감소에 따른 역대 파급효과로 전북지역의 對美 수출 감소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 역대 생산은 2,007억원, 부가가치는 560억원, 고용은 681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美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전북의 수출 및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북 수출의 중견·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크다는 점은 美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 수출 감소는 지역 내 생산·부가가치·고용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美 관세정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세 대응 정보 제공, 금융 부담 완화 등의 지원이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산·공품 등 유망소비재 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통해 전북 수출의 회복 및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소비재는 2022년 이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전북 수출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구조를 재편해 나가야 한다. 전북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 조성 등을 통해 첨단 소재 산업 육성에 유리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미래 유망 산업 중심으로 수출 품목을 재편하고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해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민생솔루션 구축

소상공인 맞춤형 상담·현장·심층솔루션

전주에서 아동복 브랜드 '에도봉'을 운영하는 청년 대표 A씨는 마케팅 전략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현재 사업장의 마케팅 전략 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토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상담을 통해 매장 내 온라인 홍보용 촬영 공간과 고객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연계 지원했다.

이에 따른 효과로 매장 이미지 개선과 고객 편의성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전북 민생솔루션'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도는 도내 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생솔루션 체계를 구축해 올해 5월까지 약 130여 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상담솔루션'은 '소상공인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창구인 '민생신문고'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 세무, 마케팅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현장솔루션'은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협력해 수요 기반의 실습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심층솔루션'은 메뉴 개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시도의원 정수 산정 공직선거법 개선 '필요'

이원택 의원 등 국회 토론회 농어촌 특별구정 마련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전북도의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 위한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실과 입법조사처, 전북도의회,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준한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며 △도시와 비도시 선거구 의원의 과소·과다 편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현 교수는 모든 지역에서 평

등하게 생활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및 자율적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일정한 법적 기준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조정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혼합형 모델을 도입하며 △특별자치도 특성과 인구 대비 적정 비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전북의 도의원 정수 증가 방향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지방정치학회 이재현 회장은 "인구비례 기반의 합리적 정수 배분과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 규정 마련, 선거구획정 방식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현재의 불합리한 광역의원 정수 산정 기준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20% 범위에서 가능한 조정 범위 또한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상당해 인구 감소 지역은 그 대표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



다"며 "총 정수 산정 기준 조정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부의장(전주6)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광역의원 정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활한 통과와 전북도의회도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공론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서난이 도의원,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 대표 발의

식품사막화 해결 공동체 육성 협력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사막화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슈퍼마켓이나 신선 식품 판매점 부족 등으로 건강한 식사가 어려운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북자치도 또한 지역소멸과 함께 식품사



서난이 도의원

막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고령이나 이동이 불편한 이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식품사막화 지역 실태조사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 육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여름철 산림휴양시설 '이상 무'

산림휴양시설 35곳 숙박·위생·시설물 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를 앞두고 도내 산림휴양시설 35곳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36일간 진행됐다.

도와 시군 산림부서,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 총 65명이 참여해 자연휴양림(13개소) 등 총 35개소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휴양림 안전운영 체계 △숙박 및 편의시설 구조 안정성 △전기·소방 설비 작동상태 △보건 위생관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마철과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대응 계획 수립 여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긴급대피 시스템 운영 체계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소화기 미비 등 일부 경미한 사항이 발견됐으나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됐으며, 현재 모든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전점검 이후에도 시군과 연계한 정기 모니터링과 추

가 점검을 병행해, 휴양객들이 안심하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온라인 예약은 '솔나들'에서 가능하며, 이 플랫폼을 통해 전국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숲길 트레킹 등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박정규 도의원, 농촌유학 거주 공간 대안 모색

"학부모 정착 전용 거주지 확보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19일 농촌유학 가정의 거주시설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농촌유학 학부모들이 안정적 거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농촌유학을 선택한 학부모와 임실 청운초등학교 이은영 교장 선생님 등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주



박정규 도의원

거 여건과 관련한 어려움, 행정 절차의 한계 등에 대해 토로하고, 장기적으로 농촌유학가정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전용 거주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가능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안전한 에스컬레이트 이용방법

손잡이를 꼭 잡고

뛰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안전선 안에서

전기안전공, ‘사람 중심’ AI 윤리원칙 제정

공공 AI ‘10대 윤리’ 발표 AI 활용 윤리기준 선제 대응 생성형 AI 공공책임 강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확산에 따른 기술 활용 윤리 기준 마련을 위해 ‘AI 윤리 원칙’을 제정했다.

최근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술 활용에 수반되는 윤리적 위험 예방과 신뢰성 확보가 사회 주요 이슈로 대두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의 일

한다.

이번에 제정된 AI 윤리원칙은 △인간 존엄성 △공공성 △다양성 존중 △투명성 △데이터 관리 △신뢰성 및 개인정보 보호 △인간의 감독 △안전성 △윤리적 활용 △협력 및 연대성 등 10대 핵심 가치를 담았다.

10대 핵심가치는 UNESCO와 OECD 등 국내외의 주요 기준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이는 공사의 경영 이념인 ‘사람존중 열린경영’을 실현하는 새 윤리원칙이자 디지털 체계 구축의 길잡이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사원 ‘이바름(e-바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감사업무에 비롯한 예산·노무·인사 관리 등 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윤경ESG포럼에서 ‘윤리경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하영 사장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신뢰성”이라며 “AI 윤리원칙 제정을 시작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기안전 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복숭아 첫 수확은 작년보다 5~7일 늦은 이달 중순부터 조생종 홍비금, 설원 품종으로 시작해 생산되고 있다. <사진=전북농기원>

참 맛있는 복숭아, 출하 준비에 분주한 농촌

농촌은 지금

복숭아는 조선시대에 왕실의 진상품으로 귀중한 농산물 중에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장수와 번영을 상징하는 과일로도 알려져 있다. 전북은 전주에서 100여년 전에 재배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임실, 남원 등이 대표적 주산지로 자래 매김을 하고 있다.

비록,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후적으로 햇볕이 잘 들고 충분한 수분 공급이 가능해 복숭아 생육에 적지므로 향이 좋고 식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색택이 뛰어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복숭아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신품종을 개발했고, 후발 주자인 전북도는 신규 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품종을 도입하는데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타 지역의 대표적인 중만생종과 차별화가 가능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시대에 수입 과일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도 아열대과실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복숭아는 저장 기간이 짧고 아직까지는 수입에 한계가 있어 타 작목에 비해 농촌의 소득작물로써 가치가 높다

첫 수확은 작년보다 5~7일 늦은 6월 중순부터 조생종 홍비금, 설원 품종으로 시작해 7~8월 중만생종 황도·백도, 9월~10월 초 만생종 백도까지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

이 기간에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병해충 방제를 비롯해 수세 관리, 수분관리, 적기수확 등 세심한 관리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복숭아를 고를 때에는 크고, 무거우며, 색택이 선명한 것을 선택해야 맛있는 과일을 만나볼 수 있다.

전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전북은 면적은 적으나 토양과 생육에 좋은 기상조건을 가지고 있어 과실의 품질에서 우위에 있다”며 “지금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상품의 엄밀한 선별과 수확기에 있는 과실은 더 세밀한 관리를 통해 전북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제공=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

전북농기원 “장마철 인삼 병해충 최소화 포장관리 철저해야”

배수 정비 및 병해방제 필요 20~21일 강한 비 집중 가능성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장마철 침수 피해와 병해 확산으로 인한 인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삼 장마철 포장관리 요령’을 마련하고, 재배 농가에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밤부터 중부 내륙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올여름 첫 장맛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20~21일에는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강수가 예상된다.

장마철에는 침수, 도복, 토사 매몰 등으로 인해 인삼 생육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 특히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포장에서는 뿌리 부패, 줄기 신장 억제, 조기 낙엽 등이 발생해 수량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과습한 환경은 탄저병, 점무늬병 등 병해 발생을 증가시키므로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책으로 배수를 정비하고 두둑을 높게 유지할 것, 경사지 포장에는 고랑 피복을 통해 토사 유출을 방지할 것, 해가림막은 팽팽하게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침수 발생 시에는 양수기를 활용한 신속한 배수와 일에 묻은 양근 제거를 실시하고, 침수 시간이 6시간 이상 경과한 포장에 대해서는 뿌리 상태를 확인해 조기 수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병해 확산을 막기 위해 탄저병과 점무늬병에 대한 예방 방제도 철저히 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 자원식물연구



전북농업기술원은 장마철 침수 피해와 병해확산으로 인한 인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삼 장마철 포장관리 요령’을 마련했다. <사진=전북농기원>

소 김주희 소장은 “장마철에는 침수 피해와 병해 확산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포장별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다.

/정재근 기자

전북자치도, 장마 앞두고 부안 침수 재해지 현장점검

도·부안군·농어촌공사참여 구조적 보완·관리 대책 주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장마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점검에 나섰다.

도는 지난 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부안군 일대 농작물 재배지와 배수시설, 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6월 19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해 부안군청,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점검단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행안면 호남정리사당 인근 논과 콩 재배지를 직접 둘러보고, 해당 지역의 배수로

와 펌프장, 제수문 가동 현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부안읍 선은리 일대에서는 우수박스 준설 및 정비 상태를 점검하고, 부안군의 침수 방지 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보안면 묘동제(용도폐지 예정 저수지)에서는 제방 안정성과 배수 여건 등도 중점 점검했다.

오택림 실장은 현장에서 “장마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 취약지 와 인명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과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 조치되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부안군,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지난 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부안군 일대 농작물 재배지와 배수시설, 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6월 19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전북도>

이와 함께 부안군 관계자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보고받은 오 실장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구

조적 보완과 관리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기원, 보급누에서 현장행정

부안 변산서 생산기반 점검 우량 보급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19일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일원에서 보급누에서 생산 실태 점검과 양잠봉가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행정에는 도내 양잠봉가에 안정적으로 보급누에서 공급하기 위한 생산기반을 점검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농기원 잠사곤충시험장은 매년 누에서 1,000쌍을 생산해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최준열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해 농촌지원국장, 종자사업소장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8호로 지정된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일대에 현존하는 전통 잡실 중 ‘장성대 잡실’에서 누에 뽕잎주기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이어 분장농가 사육시설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그리고 누에 생산시설 시찰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최근 누에는 고단백·저지방 식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혈당 조절, 면역력 증진 등 건강기능성이 알려지면서 생누에, 건조누에, 홍잠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따라 양잠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누에서 공급 기반 구축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준열 농업기술원장은 “보급누에서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도내 양잠 농가의 소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농진청,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나서

농촌감염병 예방 가이드 배포 백신 없어 개인 예방 필수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동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슬기로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가이드’(이하 안내자료)를 제작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 생산자 단체, 관계기관 등에 배포했다.

지난해 7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기관, 유관 기관, 단체, 학계 전문가로 실무작업반(TF)을 조직하고,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인체감염 예방 가이드를 마련하고 교육·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정·관리하는 인

수공통감염병은 총 13종이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 분야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큐열 △브루셀라증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다.

안내자료는 동영상, 소책자, 강의 교안 형태로 만들었으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과 농업·농촌 관련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농업인 안전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사모와 농업인 안전365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큐열, 브루셀라증,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상용화된 백신이 없다. 따라서 작업자 스스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 여부를 빨리 확인해 치료한다.

/김영태 기자

LX, 국토교통기술교류회서 국토기술 성과 공유

코엑스서 19:20일 개최

음성기반 경로찾기기술 등 첫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KAIA)이 총괄하는 디지털국토정보기술개발사업단은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에 참가해 디지털 국토를 위한 최신 공간정보 기술을 선보였다.

디지털국토정보기술개발사업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실내·외 연속취위 현장시연 △정사영상 변화탐지 △음성기반 주요시설 경로찾기 △CCTV 이동객 체 감지시스템 등 ‘국토교통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라는 슬로건에 맞는 다양한 연구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성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세대학교, LX공간정보연구원, 한국건

설기술연구원 등 산·학·연의 협업을 통해 발전됐기에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기술 중 비공간 정보를 공간정보화 하는 ‘위치정보 자동부여기술’은 디지털 국토를 실현할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또 19일에는 국토교통부, KAIA 등 국토교통분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디지털 국토정보 활용’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연구성과 발표, 전문가 토론 등을 실시하고 국토의 미래 발전방향과 방향성도 제시했다.

국토교통기술교류회는 국토교통분야 우수 연구성과 홍보를 통해 국토교통 R&D 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미래세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25년부터 국토교통기술대전과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김영태 기자



LX전북지역본부 권역별 윤리경영교육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춘수)가 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대면교육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삼일동안 실시하며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에 힘을 실었다.

윤리경영 대면교육은 바람직한 윤리 문화를 조성하고 공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LX 본사·부속기관·지역본부 단위로 매해 시행되는 행사이다.

LX전북지역본부는 올해 이반달 총 3

회차에 걸쳐 관내 권역별 윤리경영 대면교육을 추진했다.

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윤리경영 대면교육은 LX 임원 초청 ‘윤리경영특강’을 비롯해 △대통령령 예방 교육 △청렴교육 △감찰예방교육 순서로 진행됐다.

박춘수 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되돌아보고,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군산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영상회의 개최…추진상황 점검

군산시가 강임준 시장의 주제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상황 점검 등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영상회의는 자연 재난 대응·담당 14개 부서와 27개 읍면동장이 참여했다. 회의는 안전총괄과를 시작으로 건설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추진사항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으며, 작년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 현황도 꼼꼼하게 살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회의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 군산시가 재난 청정구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비치며 10건이 넘는 질의를 통해 각 부서의 물 샅 틈 없는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또 △피해 신고 접수 시 담당 부서 즉각 응답, △업무 떠남기기가 아닌 초 부서 협력, △신속한 피해종합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시장은 군산시의 모든 부서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재차 당부했으며, 각 읍면동에도 한 건의 피해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피해 사실 조사에 적극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중대산업재해 대비 다중이용시설 실전훈련 실시

정읍시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실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8일 정읍트레이닝센터와 서남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두 곳에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과가 주관하고 시설운영과와 자원순환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정읍소방서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훈련은 사고 위험 요소가 많은 다중이용 사업장을 선정해 화재, 스키드로터 충돌 등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전북 중장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료

익산시는 익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센터장 이효선)와 19일 익산비즈니스센터에서 ‘2025 전북 중장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경험에 날개를, 창업에 희망을, 전북의 미래 우리가 이끈다’라는 가치를 걸고 열렸으며, 기술 기반 창업 아이템을 가진 중장년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자 마련됐다.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11개 팀은 이날 본선 무대에 올라 아이디어에 대한 열띤 발표를 펼쳤다. 이어 외부 전문가 4인으로 이뤄진 심사단이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차별성 △기술 실현 가능성 △시장성 △실행 계획의 구체성과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심사 결과 대상 2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4팀, 장려상 2팀이 선정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외국인 비자 전환 문턱 낮춘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설명회

군산시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과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설명회’를 19일 군산산업단지 복합 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공동 주관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3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전환 제도 설명, 신청 자격 및 절차 안내, 현장 상담(컨설팅) 등으로 진행됐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단순 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가 거주기간, 연봉,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총 200점 이상 얻을 경우 전환할 수 있는 점수제 비자이다.

특히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 내 최대 2년씩 계속 연장에 체류할 수 있으며, 본국으로 출국해 비자를 연장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된다. 여기에 가족 동반 초청 및 체류까지 가능해져 산업인력 인력난 해소와 인구 증가 효과까지 기대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산업계



군산시가 19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군산시>

인력 부족 해소와 외국인 장기 정착 유도 등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지원하는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을 통해 전환 점수 30점이 가점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 전환의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다.

시 역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후 3개월 이상 군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군산사랑상품권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지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정착 초기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천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hj97@jbba.kr, bh91@jbb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및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수성1 임대주택 총 200세대 7월 7일~31일까지 신청

정읍시 수성1 영구임대주택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입주를 본격화한다.

시는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성1 영구임대주택 921세대의 리모델링을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208세대의 예

비입주자를 선정했고, 현재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총 200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층이다.

공급 주택형은 36.54㎡(11평형)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형 스마트도시 실현…화재감지·스마트정류장

연지동 박병원잔다리목 일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정읍시가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선정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화재감지기 설치 △가로등 비상벨 설치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2월, 연지시장 일원 상가 200곳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초기 화



재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시내 중심지인 연지동과 수성동의 취약지역에는 총 39곳에 가로등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 상황 시 경찰서 112상황실과 즉시 연결되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도 주목할 만하다. 노후 정류장을 철거하고, 냉난방기

와 온열벤치, 공기청정기, 버스도착 안내 단말기를 갖춘 최신 정류장이 연지동 박병원과 잔다리목 일원에 설치된다. 시민들은 더 쾌적하고 신뢰감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 시작

금융·법률·복지 연계 통합 자립 기반 마련·사례관리

익산시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고자 금융·법률·복지를 연계한 현장 상담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익산시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이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상담은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성시종·정현율) 통합 사례분과와 익산시가족센터가 협력해 진행됐다.

통합사례분과는 사례관리 대상자 중 상담수가 지출 관리 미숙 또는 금융·법

률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계부채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일시적 지원을 넘어 더욱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고자 통합 상담 서비스를 기획했다.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은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해당 기관의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차 운영을 시작으로 통합사례분과 소속 사회복지기관들은 부속종합사회복지관(동부권), 동산사회복지관

(남부권),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등으로 상담 대상을 확대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성시종 민간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상담을 지원하고, 시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KBS 예능으로 만나는 익산 백제

‘특급공무원 시즌2’ 오는 20일, 27일 방영

익산시가 예능을 통해 백제의 수도이자 근대문화 도시로서의 매력을 전국에 알린다.

익산시는 특집 예능 ‘특급공무원 시즌2’가 오는 20일과 27일 오후 7시 40분에 전주 KBS 1TV를 통해 시청자들을 만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즌2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시즌1에 이어 제작된 것으로, 오는 8월 전국 방영도 예정돼 익산의 문화적 가치가 더욱 넓게 전달될 전망이다.

프로그램은 방송인 김대호와 가수 예린이 출연하며, 관광을 넘어 유산을 공감하고 해석하는 역사 테마 중심의 예능을 선보인다.

출연자들은 ‘특급공무원’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아 익산의 세계유산을 탐방하고 체험하며, 문화유산과 감성예능이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예능으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출연자들은 “우리가 걷는 이 거리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시간이고, 이 도시의 역사”라며 “기억을 품은 도시라는 말을 실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앞바다에 어린 갑오징어 종자 방류

1억5천만 원 투입 17만여 마리

군산시가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 2년 차 사업의 하나로 19일 비안·방축·연도 해역에 어린 갑오징어를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갑오징어는 17만여 마리로 종자 크기는 전장 1cm 정도이다. 시는 1억 5,000만 원의 방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연안에서 건강한 어미 암수를 교배하여 4~5월 채란 후 육상에서 부화시켰다. 방류 전 전염병 검사도 마쳤다.

방류한 어린 갑오징어가 건강한 성체로 성장해 지역 어업인들의 큰 소득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자원의 지속가능성 및 수산물 가치를 올리기 위한 브랜드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관내 해역에서 갑오징어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어업인들의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 비용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40억 원이다. 이 중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는 산란장과 인공 해조장 조성, 자연식 시설, 종자 방류 및 효과조사 등이 추진되며, 사업비는 총 8억 원이 소요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농식품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40개 업체 현장 점검

정읍시가 지역 농식품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수혜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후관리 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7월 4일까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식품 가공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여부와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건물과 시설은 10년, 기계와 장비는 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시는 보조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물론, 해당 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점검 결과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될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금마저 익산 백제마을로’…웰니스 한방 투어

익산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방 힐링 자원을 결합한 여행을 선보이며 지역 고유의 치유형 체류 관광 콘텐츠 확산에 나섰다.

익산시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세만)과 함께 ‘금마저 익산 백제마을 웰니스 한방 투어’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웰니스 한방 프로그램’으로 △역사 한방 △자연·치유 한방 △전통문화 한방 △건강 한방이라는 주제로 구성됐다. 역사문화자원과 한방의학, 향토식문화 체험이 융합된 체험형 관광코스인 익산 고유의 문화 정체성과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여행은 옹포 곶개나루 금강 유람선

체험으로 시작해 임절리교본 전시관에서 백제 유적을 관람하고, 익산 특산물인 참마와 서동전설을 활용한 마약밥 체험으로 이어진다.

이어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황수연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 4남매 시골된장에서 발효식품을 직접 만들고, 왕궁리 유적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배경으로 천연염색 체험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회(6월 20~21일)는 전북권 문화관광재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2회(6월 27~28일)는 여행사 및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체험 후 익산 웰니스 관광지를 알리는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소상공인-중견기업 잇는다

‘소중한 인연 프로젝트’ 추진 60여개 소상공인-기업 참여 로컬제품 소바판로 정기 지원

완주군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완주경제 소(소상공인)·중(중견기업)한 인연 프로젝트 1탄’을 본격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19일 완주군은 60여 개소의 소상공인 대표와 기업 및 단체 간 협약식을 갖고, 완주군 로컬 제품의 정기적 소비와 판로 지원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는 완주산단진흥회, 전북금형

협회, 뉴텍, 대주코레스, 알에프세미 등 중견기업과 단체가 참여했으며, 향후 자사 복지 프로그램, 사내 행사, 명절 선물, 고객 기념품 등 다양한 접점에서 완주 소상공인의 제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으로는 숲쟁이협동조합, 한승목장, 봉상생강조합, 한스팜, 참살이모약골 등 완주를 대표하는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했다.

완주경제센터 주관으로 추진된 ‘완주경제 소·중한 인연 프로젝트’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및 단체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간 연결을 통해 함께 완주(完走)한다는 의미를 담은 상생협력 모델로, 단발적인 소비 캠페인을 넘어 정기적 구매 및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 구조를 목표로 한다.

완주경제센터는 이번 프로젝트와 연계해 ‘완주몰(Wanju Mall)’을 통한 온라인 판로 확대 및 고부가가치 상품 패키지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농산물, 특산물, 수공예품 등 완주군의 차별화된 로컬 제품을 기업 맞춤형으로 구성해 공급, 군 단위 커머스 기반의 디지털 유통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폭염·홍수해 재난 선제 대응 나서

무더위쉼터 159곳 정비 고위험지 집중 관리 강화

순창군이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대책 회의에는 13개 협업부서장이 참석해 폭염과 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부서별 대응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로 여름철 재난 대비 추진상황과 대책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평균기온 25.6℃와 열대야일수 24.5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며 관내 온열질환자 19명이 발생한 상황을 분석하고, 올해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24시간 재난상황



순창군이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관리 체계 구축 ▲무더위쉼터 159개소 정비 ▲인명피해우려지역 46개소 집중 관리 ▲취약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강화 ▲저수지 172개소 사전 방류를 통한 적정 수위 관리 등이 보고됐다.

또한, 회의에서는 신속한 홍보와 언론 대응체계, 비상연락망 정비, 취약노

인 보호대책, 도로·저수지 안전관리, 산사태 예방대책 등 각 부서별 전문 분야에 대한 세부 계획이 발표됐다.

최영일 군수는 “여름철 자연재난은 예측 가능한 재해인 만큼 철저한 사전 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청 근대5종팀 전국대회 ‘맹활약’

국대 김예나 개인전 1위 김우철 2위·여단체 2위

완주군청 근대5종팀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개인전 1위를 따내는 등 맹활약했다.

완주군청 근대5종팀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 참가했다.

국가대표로 활동 중인 김예나 선수는 근대4종 개인전 1위를 거머쥐었고, 김우철 선수는 근대4종 개인전에서 2위, 김예나, 이화영, 소재영 선수는 근대4종 여자 단체전에서 2위를 하며 탁월한 기량을 선보였다.

완주군청 근대5종 선수단은 국가대표 김예나 선수를 비롯해 여자 선수 3명의 좋은 성적으로 단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활약했다.

임성택 근대5종 감독은 “선수들이 땀 흘려 준비한 만큼 값진 결과를 얻어 무척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완주군청 근대5종팀 선수들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열린 문체부장관기 전국대회에서 개인전 1,2위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사진=완주군>

지원과 훈련을 통해 많은 대회에서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국 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우리 완주군청 근대5종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하고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오는 7월에 제12회 한국실업근대5종연맹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여름철 재난 대비 건설현장 안전 강화

장마·태풍 대비 현장 점검 요청 일대 중심 집중 정비

최근 장마가 평년보다 앞당겨지고 태풍 발생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남원시가 건설 현장과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남원시장을 비롯해 안전건설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 등 지휘부와 실무진이 함께 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조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2020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겪었던 요천 일대를 중심으로 호안 설치사업의 진행 상황,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현장 안전관리 실태,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세밀히 확인했다.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보완을 시행했다.

기상청이 6~7월 사이 평년보다 많

은 강수량과 게릴라성 호우를 예보함에 따라, 남원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적인 재해가 늘고 있어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아동권리영화제’ 작품 공모 시작

오는 9월 8일까지 접수

소외계층 아동권리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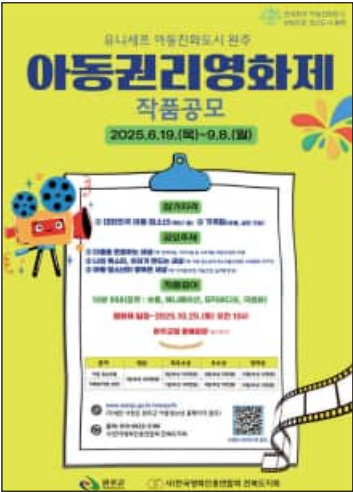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아동권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영화제 작품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팀의 경우 아동과 성인이 함께 참여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장애아동, 이주아동 등 소외계층의 아동권리를 조명하는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변화 이야기’, ‘나의 목소리, 우리가 만드는 세상’, ‘디지털 환경, 마음건강, 놀이환경 등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영화를 제작하면 된다.

출품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한 작품으로 숏폼,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극영화 등 형식·장르에 제한없이 10분 이내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은 10월



25일 완주군청 일원에서 열리는 아동권리영화제에 초청되어 상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아동청소년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아동권리영화제 공모전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시선으로 권리와 삶을 표현하고,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완주군은 아이들이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구강보건 향상’ 도지사 기관표창

다양한 구강보건 프로그램 선도적 정책 추진 높은 평가

순창군이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도민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순창군은 지역 내 아동, 노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군은 찾아가는 구강건강교실 운영,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비 지원 등 실질적인 건강개선 효과를 가져온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표창은 군민과 함께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세대가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강보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강보건의 날’은 매년 6월 9일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춘향愛특독’ 건설업계 목소리 청취

공사예산 확대 등 논의 비수기 대책 건의사항 제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역 건설업

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19일 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정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설업계 대표, 운영위원, 전문건설협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경식 남원시장이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정책 참여·캠페인 등 활동

순창군이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7기 순창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된 18명의 청소년에게 최영일 군수가 직접 위촉장을 전수하고, 위원들의 노력과 참여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군의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성된 참여기구다. 위원들은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프로그램 운영,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연말까지 펼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정책을 직접 제안하며 활동하는 것이 위원회의 중요한 가치”라며,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순창군의 청소년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산사태 예방 총력 대책 상황실 본격 가동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종합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산사태 대책상황실은 산사태 예보 및 위기경보 발령 시 단계별 대응, 24시간 비상근무, 응급복구 체계, 주민대피 경로 확보 등 실질적인 대응 기능을 갖추었다. 또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상 약화 시 실시간 모니터링과 조기경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해빙기인 2월부터 4월까지 산사태취약지역 267개소와 산사태 대피소 103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완료하였다. 5월 말에는 생활권 인근 6개소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

사전 예방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 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국·도비 등 60억 원을 확보해 33개소에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진행 중이며, 자체적으로는 8개소에 소규모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장 최경식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는 만큼 산사태는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예방단 운영과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안전한 여름휴가’ 유관기관 협력 수상 안전 가동

완주군이 여름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관내 계곡·하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완주군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여름철 수상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완주경찰서, 완주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담당자 등 10여 명과 수상안전사고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완주군 수상안전관리구역 19개소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기관별 대책 마련과 협업체계구축 방안, 다습기 채취 등 비관리지역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등이 다.

군은 고산면 6곳, 운주면 10곳, 동상면 3곳의 수상안전관리지역을 지정·관리 중이다. 물놀이객이 집중되는 휴가철 7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안전시설물 비치 ▲수상안전관리요원 배치 ▲물놀이 안전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수상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여름철을 맞아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계곡과 하천을 찾는 만큼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름휴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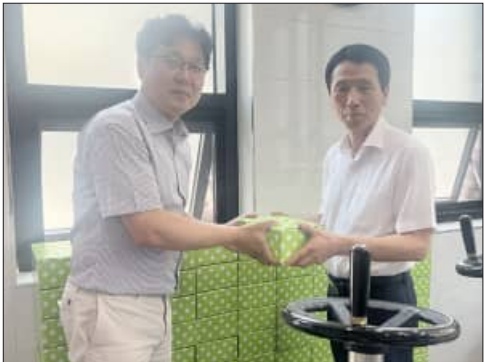
남원 덕과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폭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덕과면장 성원계는 “폭염은 노년층에게 매우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는 기상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더 생생한약방, 전주 환경관리원에
보원탕 200인분 제공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더 생생한약방(대표원장 이흥신)이 지난 18일 한국노총 전주시청지부에 보원탕 200인분(3,200팩,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여름철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관리원들에게 전달돼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었다.

이흥신 더 생생한약방 원장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체력 관리가 어려운 이웃과 힘 없이 땀 흘리는 현장노동자분들께 작은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건강한 전주'를 만드는 일에 앞으로도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군산 월명동 민규짬뽕,
지역 어르신들에 따뜻한 음식 대접

군산시 월명동 착한가게 23호점 '민규짬뽕'(대표 김민규)이 19일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다.

'민규짬뽕'은 월명동 짬뽕특화거리에 위치한 가게로, 식사 나눔, 김치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와 보탬이 된다.

김민규 대표는 "저희 가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가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는 뜻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 월명동 주민들 약 100명,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

군산시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함께한 환경정화 캠페인 '쓰담쓰담, 월명동'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5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앞둔 가운데,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자'라는 불법투기 쓰레기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월명동 주민자치위원회·통장협의회·자원봉사자 등 약 100명이 뜻을 모아 참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소방본부,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전술 '1위'

전국최고 현장대응능력 입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구급전술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시·도의 대표 구급대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전과 유사한 시나리오 속에서 구급기술과 대응역량을 겨루는 자리였다.

전북 대표로 출전한 이이정훈 소방위 △김시원 소방장 △노승환

소방장 △강지훈 소방장 △서영빈 소방사 등 5명의 구급대원들은 탁월한 응급처치 능력, 집착한 판단력, 완벽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최고점을 기록하며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단순한 수상에 그치지 않고, '1계급 특별승진'이라는 의미 있는 영예로 이어졌다.

이는 구급활동이 단순한 경연이 아닌, 실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중대한 기술임을 다시금 일깨우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정읍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농협은행 정읍시지부 직원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19일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번 대상자인 A씨는 본인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는 기관을 사칭한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원씩 연속하여 인출하는 피해자를 수상히 여겨 비정상 거래로 판단, 지급정지를 했다.

그 후 피해자가 직접 은행을 찾아와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

에서 금융사기가 의심이 되어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를 설득,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앱을 삭제하여 더 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김순기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장은 "최근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자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서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영태 기자

진안 동부 새마을금고,
장학금 200만 원 기탁

진안 동부 새마을금고가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섭)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17일 열린 기탁식에 참여한 서기욱 이사는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인사] 전북특별자치도 (25.7.1.일자)

◆국장급 전보인사 내정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25.8.1일자) 유희숙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강영석

◆과장급 전보인사 내정
△인구청년정책과장 조윤정 △법무행정과장 한병국 △안전정책과장 정광모 △사회재난과장 박장석 △유산관리과장 이성철 △국제과장 이상욱 △사회복지정책과장 양수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효선 △산림자원과장 송경호 △기업유치과장 양선화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조성연
△농식품산업과장 정도건 △동물방역과장 이재욱 △농업기술원 원예과장 서상영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강경덕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장 최영두 △농식품인력개발원장 김홍표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효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상국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형삼 △원광대학교 파견 열기남 △진북테크노파크 파견 정병중 △외교부 윤세영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5대 양희옥 관장 취임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일 센터 강당에서 유관기관장과 지역여성단체, 기업체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박성숙 관장의 이임식 및 제5대 양희옥 관장 취임식'을 가졌다.

박성숙 전임 관장은 이임사를 통해 "센터에서의 시간은 여성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감동의 연속이었다"면서 "퇴임 후에도 여

성의 일자리와 권익 향상을 위해 늘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양희옥 신임관장은 취임사에서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으로 임명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여성이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센터가 주도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정재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전자공장 화재 예방 '비나텍' 점검

전주덕진소방서는 19일 화성아리셀 전자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관내 전자공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행정지도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발생해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화성 전자공장 화재를 계기로 '전자공장 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계획'에 따라 추진됐으며, 덕진구 운암로 소재 ㈜비나텍을 진

행했다. 비나텍은 이차전지 핵심 부품인 슈퍼커패시터 및 활성탄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날 예방안전팀은 사업장 관계자와 직접 면담하며 △전지 저장 및 제조공정의 화재위험요인 △배터리 원료의 보관상태 △비상구 확보 및 피난로 관리실태 등을 중점 확인하고, 사례 중심의 안전 컨설팅을 병행했다.

/김영태 기자



〈一事一言〉



조은석 특검의 기민성 - 김용현 추가 기소를 환영한다

김관춘
논설위원

내란과 외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특검검사가 증거인멸교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전격 추가 기소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및 외환 혐의 특검’으로 임명된 조 특검이 수사 착수 엿새 만에 거둔 첫 번째 성과이자, ‘3대 특검’ 출범 이후 나온 첫 기소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오는 26일로 다가온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범의 사각지대에서 빠져나가기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이번 신속 기소는 사법 정의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사건의 실행 기획자로 지목된 ‘수괴급’ 인물이다. 군 수뇌부를 장악하고 군 내부 조직망을 동원해 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혐의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국가의 정통성과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중대범죄다. 그가 지난해 12월 말 구속된 이후 진행된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각종 위증 시도와 증거 왜곡, 방해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장관은 제약이 걸린 보석 조건에 불만이 컸던지 이에 불복해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까지 감행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와 재판을 전방위적으로 해방하려는 노림수가 명백히 읽히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은석 특검의 발빠른 추가 기소는 법정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조 특검은 경찰·검찰과 공조해 사전 수사 기록을 신속히 분석했고, 지난 18일 밤 사이 골장 장소 제기를 완료했다. 혐의는 단순히 행정적 과오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대 범죄다. 조 특검팀은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 심리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과 그 배후 세력의 조직적 범죄를 남김없이 파헤치겠다는 특검의 확고한 결연함을 보여준다. 조 특검의 이번 추가 기소가 법원에 의해 발부된다면 내란 수고 윤석열에 이어 김용현까지 거리를 확보하게 하는 참사를 막은 것이어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고 국민들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주면서 특검의 효능감을 안겨줄 것이다.

김용현 전 장관의 존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선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군사력을 동원한 반헌법적 행위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물이 구속기한 만료라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석방된다면, 그것은 단지 한 명의 피고인의 석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그가 풀려난 이후 다시 내란 가담자들과 모의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실 규명을 방해할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조은석 특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의 실현이자, 지난 내란 사태로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려는 첫 걸음이다. 조 특검은 특검 임명 후 불과 6일 만에 수사 착수 및 첫 기소를 완료하며 ‘시간이 곧 정의’임을 보여 주었다. 더 이상 권력자에 대한 예우나 지체, 회피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내란 혐의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정히 단죄해야만 파괴되고 유린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초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이제 국민은 특검의 다음 수순을 지켜보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내란 모의가 어디에서 어떻게 기획됐는가? 그리고 당시 최고 권

력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가? 이 물음들에 답하는 일은 단지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과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조은석 특검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진정한 정의는 속도를 요한다. 법의 갑날은 늦지 않게,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사용되어야 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기소를 시작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 사법 전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이 이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단죄 없는 화해를 거부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 침묵 위에 평화는 결코 세워질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번 기소는 단순한 개인의 처벌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의 근간을 흔든 지난 12.3 내란 기도에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부, 고위 공직자,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은 이번 특검이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정치적 눈치 보거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끝까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야말로 특검의 사명이자 시대의 요청이다. 내란 종사자들의 혐의 입증에 고군분투하는 조은석 특검의 선전을 기원한다.

사설

전주형 AI 스마트도시, 전북 미래 혁신 모델로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도시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선정은 전주뿐 아니라 전북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수원과 화성 등 경쟁한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거머쥔 이번 쾌거는 단순한 공모 선정 그 이상이다. 총 사업비 325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비 160억을 비롯해 도비와 시비가 함께 집행돼 지자체·중앙정부·민간의 삼각 협력 구조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스마트도시의 본보기라 할 만하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전주형 AI 스마트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데 있다. 이동식 금융서비스,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수단, AI 기반 건강관리, 실시간 도로위험 정보 제공, 시민참여형 탄소 리워드 등 다방면에서 시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담았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도시 기능의 통합과 최적화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게 하는 스마트 도시의 정수를 보여준다.

전주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연결된 데이터 생태계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의료·교통·환경 등 주요 생활영역의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곧 시민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하는 초개인화 도시관리 시스템의 구현이기도 하다. 이로써 전주는 기술로 삶을 변화시키는 ‘살기 좋은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전역에 스마트 기술을 확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주역, 한옥 마을, 구시가지 등 중심지역을 기점으로 도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근 지자체로 서비스와 기술을 확산해 전북 전체의 스마트 도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협업모델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전주시와 전북자치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정연구원, 전주대학교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현대차·기아차·KT·마이크로소프트·전북은행 등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령화, 1인 가구, 의료사각지대 등 지역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기술 기반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다. 찾아가는 진료소, AI 약자돌봄케어 등은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스마트복지 모델로, 기술과 휴머니즘이 결합된 정책 실현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다.

정동영 의원의 지원은 이번 성과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였다. 그는 전주시를 ‘도내 스마트도시 확산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지금 전주는 단지 기술적 진보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을 바꾸고 시민과 공동체, 행정이 서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시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그 첫 발걸음이 성공적으로 시작될 만큼 이 여정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로 귀결되길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순화리 삼층석탑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유적건조물, 불교, 탑
-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 시대 - 고려시대
- 소재지 - 순창군 순창읍

장유로 295-11 (순화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대표전화 282-9601		인쇄인 김은주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지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암실지국 010-8642-6502
연호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전북타임스

변치 않는 신념, 바른소식을 전달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 5층 대표전화 063)282-9601 팩스 063)282-9604

문화는 깊게, 관광은 넓게

김제시 매력을 더하다!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시민들에게 힐링과 활력을 선사하기 위해 문화 향유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김제는 민선8기 이후 더 이상 문화와 관광에 낙후된 곳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끊임없는 실천으로 시민에게는 보다 많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김제에서 단순한 관광뿐만 아니라 체류형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선 8기 이후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자.

김제, 전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다.

△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 '김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순항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 중인 '김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는 김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 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교동 99-1번지 일원에 191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46㎡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체험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6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찾아가는 문화예술의 향연,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김제시 문화의 날'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김제시 문화의 날은 문화의 날 주간(매월 마지막 주)에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 4회, 2024년 8회, 2025년 5월까지 2회 개최했으며, 이후 4회 더 추진할 예정이다.

△ 김제시 문화예술의 거점지, 김제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의 거점지로 자리매김한 김제 문화예술회관은 민선 8기 공약인 지역사회 인프라 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에는 뮤지컬, 연극, 음악, 코미디 등 22회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편성하였다.

상반기에는 신촌 트로트 콘서트, 디즈니&픽사 영화 음악 FESTA 등 7회의 공연이 진행되었고, 하반기에는 발레 잡자는 숲속의 미녀, 코미디 웅알스 히스토리쇼,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초청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은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예산 확보는 물론, 질 높은 문화 콘텐츠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다.

△ 2025 꽃빛드리축제, 김제 관광과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연다.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 꽃빛드리축제'는 '꽃처럼 빛나는 청춘'이라는 부제 아래 아날로그 감성과 세대 간 소통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힐링 축제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해에 이어 '4가지 없는 축제(술·일회용품·유명인사·격식 없음)' 철학을 지키며, '젊음을 잇다', '사랑을 잇다', '공동체를

시민 문화예술 기회 제공
체류형 관광객 유치 강화

있다', '지역을 잇다'라는 4대 주제로 전통과 현대, 사람과 지역을 잇는 의미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 광역 자전거길 허브 구축과 체류형 관광 강화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2025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은 김제시를 중심으로 3개 자전거 코스를 개발·운영하며 체류형 관광 시대를 열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 설치와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 관광 마케팅과 서비스 개선으로 '김제'를 더 특별하게

김제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통해 관광객에게 숙박, 체험,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과 방문객 간 유대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맛보.자.고 푸드 캠페이션'은 지역 특색 먹거리 발굴과 음식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외식 전문가 교육과 품평회로 축제 먹거리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국가유산! 김제의 꿈이 깨어납니다.

잊힌 역사를 다시 세우고, 미래를 설계하다.
△ 김제, 국가유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

다 - 명승 지정부터 유산 복원까지

2025년, 김제시가 국가유산의 핵심 거점으로 우뚝 섰다.

그 시작은 진봉산 망해사 일원의 국가 명승 지정이었다. 이는 국가유산체제 전환 이후 첫 번째 성과로, 김제가 대한민국 자연·문화유산 정책의 선두에 섰음을 의미한다.

시는 멸종위기 철새도래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입증하고, 새만금 유역의 수질 정화 기능을 강조하는 등 생태학적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 여기에 잊혀진 역사 공간 '낙명대'의 종재까지 발굴하며 문화와 생태가 융합된 '융복합 명승'으로 그 위상을 완성했다.

이어 김제시는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상징이자 정선의 문이었던 김제 관아 외삼문 복원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총 66억 원,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 유산의 도시, 콘텐츠와 체험으로 진화하다 - 활용사업 5관왕 달성!

김제는 단지 유산을 지키는 데 머물지 않았다. 2025년, 국가유산 활용사업 5개 전 부문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일한 성과다.

이제 김제는 문화유산을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 교육, 예술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오는 9월 열리는 '김제 국가유산 야행'은 그 정점을 찍는 대표적 활용사업이다.

밤하늘 아래 피어나는 이 야행은 김제의

밤을 유산의 감동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 김제에서 다시 시작되다 - 종교평화 순례사업 선정

다종교의 공존, 그 이상을 보여주는 도시 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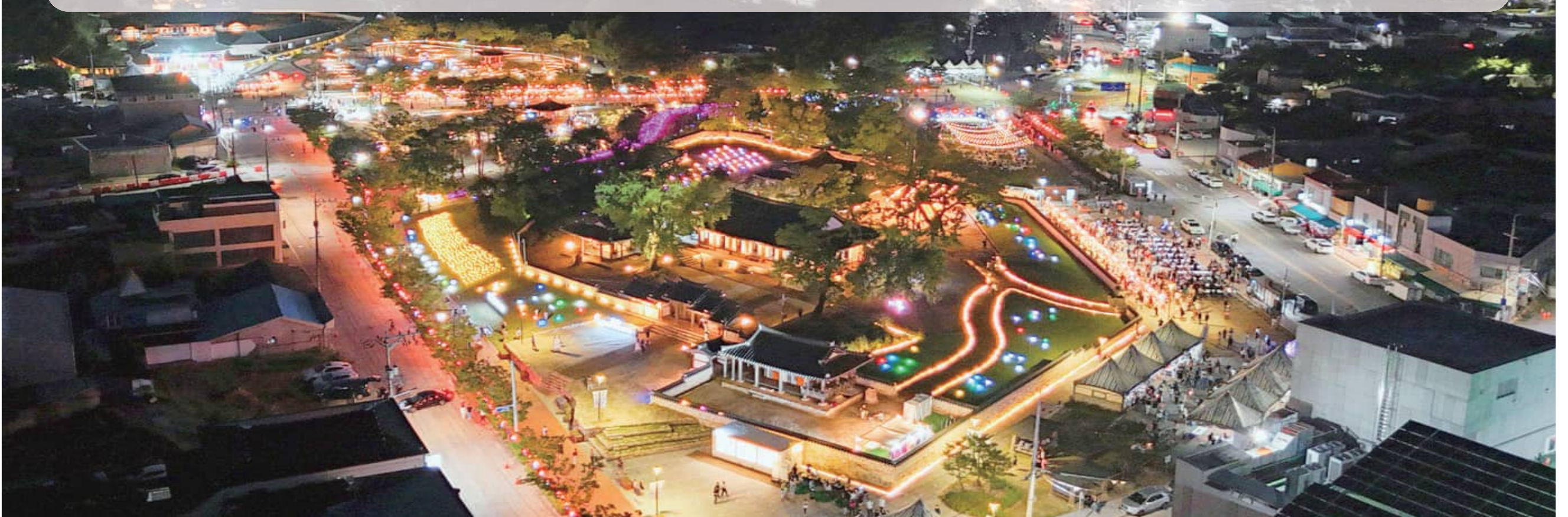
2025년, 김제시는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종교평화 순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의 무대가 되는 김제 금산면 일대는 불교(금산사), 개신교(금산교회), 천주교(수류성당), 증산교(증산법종교본부), 동학(원평집감소) 등 하나의 면 단위에서 다양한 종교의 성지가 모여있는 뿐 아니라, 이 모두가 국가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일의 사례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문화와 관광은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생활인구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라며 "김제는 소중한 국가유산과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꾸어 나간다면 계절마다 관광객들이 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과 김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김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름다운 기억으로 다시 찾고 싶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김제=온봉기 기자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자연사랑·자연보호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 개요〉

◆공모기한 - 2025년 5월27일 (화)~6월20일 (금)

◆참가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재학중인 초등학생

◆작품주제 -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에 관련된 모든내용

◆공모부분 -그림 (만화 포함)

◆용지규격 - 8절지 크기 (B4용지)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학교별 단체 및 개인접수)

◆접수처 - (우) 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5층 (jbn8800@hanmail.net)

◆입상자 발표 - 2025년 7월 11일(금)

◆입상자 시상 - 2025년 9월 13일(토)

〈시상내역〉

♡ 대상(3명)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전북특별자치도의장상

♡ 최우수상 (4명) - 전주시정상(2명), 전주시의회장상(2명)

♡ 우수상 (20명) - (재) 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 장려상(50명) - 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

♡ 특별상 (3명) - 국회의원상

*기타문의사항-본사 총무국 063)282-9601 ~3

홈페이지 -www.jeonbuktimes.co.kr

